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마르 6, 4)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제임스 티소트, 브루클린 박물관, 뉴욕

[제1독서] 예제 2,2-5

[화답송] 시편 123(122),1-2 1.2 ㄷ ㄷ 3-4
(◎ 2ㄷ ㄷ)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제2독서] 2코린 12,7-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 마르 6,1-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60] 하느님의 어린양
[174] 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39] 하나되게 하소서

복음과 성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제임스 티소트(James Tissot, 1836-1902)는 1886-94년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수채화 연작으로 그렸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티소트가 그린 그리스도의 생애 연작 중 하나이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서는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루카복음서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서서는 아마도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봉독하고,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셨을 것이다.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다. 거룩하게 예복을 차려입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년 선포를 놀랍고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제임스 티소트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마르코 4,2-3)

거룩한 예복을 차려입고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우리도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도 예수님께 구실을 붙여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그분의 지혜와 기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마르코 4,4-5)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늘 새롭게 만나지 않고 고향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만나면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놀라지 않게 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은총의 해를 선포해야 한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박물관〉

#복음 묵상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으려만, 우리의 삶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다가도 다른 이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악을 물리치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며 아픔을 없애 주시는 하느님의 나라는 모든 이에게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의 아들과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라는 행복을 체험하지만, 결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행복하려면 내 곁에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할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하느님의 나라는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타인을 자신의 행복을 재는 도구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줄 때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최종훈 토마스 신부)



미사와 전례

미사 예물과 미사 지향

- 하느님 자비와 교회의 기도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미사에 참례해야 -

미사에서 흘러나오는 효과를 자신의 지향대로 적용해 주기를 요청하며 사제에게 주는 예물을 “미사 예물”이라고 합니다. 미사 중에 성부께 자신을 봉헌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에게 더욱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제와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뜻에서 미사 예물을 바칩니다.

8세기부터 서방교회에서 미사에서 누룩 없는 빵을 쓰고, 봉헌 행렬 때 빵 대신 돈을 바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봉헌된 돈은 주로 성직자의 생계 지원에 쓰여졌습니다. 이 때부터 “미사 예물” 관습이 생겼는데, 예물을 봉헌한 교우가 요청한 특정 지향에 따라 사제가 미사를 거행하는 관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미사 예물에 법적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물과 미사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예물이 쉽게 돈으로 대체되면서, 계약 성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곧 사제에게 물질적인 예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사제에게서 미사에서 나오는 영적인 예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물을 봉헌한 신자는 자신이 미사의 특별한 효과를 독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미사 자체보다 그 효과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었고, 미사 예물만 봉헌하고 미사 참여에는 소홀히 하는 모습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 전례 개혁에서는 미사는 거행 자체가 중심이며, 영성체로 절정에 이르는 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모든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이며 모든 이의 구원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사 예물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봉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결합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사에서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시며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내어 주십니다. 이제 하느님은 예수님께 받은 제물을 은총으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이렇게 미사 예물을 바치며 미사에 더욱 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우들은 자기가 요청한 지향에 따라 거행되는 미사에 영성체를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사 예물의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사의 목적과 지향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해야 합니다.

미사 지향으로 예물과 함께 봉헌을 했다면, 그 효과는 미사 중에 사제가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 곧 사제의 직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며, 사제가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자비와 교회의 기도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 : https://maria.catholic.or.kr/mi_pr/missa/bbs_view.asp?id=170230&ref=1810&menu=4801

● 본당 성서모임 봄 학기 종강 미사



본당의 성서 모임(SPC CBLM)은 2021년 봄 학기를 마치며 지난 6월 27일(일) 5시 미사를 종강 미사로 봉헌하였다.

한 학기 동안 비대면으로 함께한 봉사자들과 그룹원들이 모여,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 학기 동안의 소감을 나눴다. 또한 봉사자들이 생활성가 ‘너 어디 있느냐’에 맞추어 준비한 율동과 찬양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한 학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지만 직접 얼굴을 보며 종강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1 예산 사용 안내

- 2021년 7월부터 모든 예산은 '예산 사용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후에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용 내역은 본당에서 지불되지 않습니다. 예산 사용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미사 참석시 준수 사항

- 코로나19로 지켜왔던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에 대해 본당 신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의견을 토대로 **7월 10일부터 '마스크 쓰기'**는 계속 하고 '거리두기'는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은 결정 사항을 숙지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체부 월례회의

- 일시 : 7월 11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A1-2)

4 바오로 딸 성경학교 1-2학년 하계 연수회

- 일시 : 7월 11일(일) 오후 2시-5시(Zoom 줌 미팅)
- 대상 : 바오로 딸 성경학교 1,2학년 전원
- 강사 : 홍점마 수녀님
- 문의 : 안윤민 교육부 부장 (571)275-0691

5 유아세례식(8월부터)

- 유아세례식이 8월부터 매월 둘째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문의 : 사무실 (703) 968-3010

6 유아실 개방

- 유아실을 개방합니다. 유아실은 어린이들의 방역을 위해서 보호자는 한 명만 들어가 주세요.

7 성 요셉의 해

- 성 요셉의 해(2020년 12월 8일 - 2021년 12월 8일)를 맞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를 드리며 특별 대사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 요셉의 해 안내 및 특별 대사의 은총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10029?gb=K1200>
<https://cbck.or.kr/Notice/20210030?page=3&gb=K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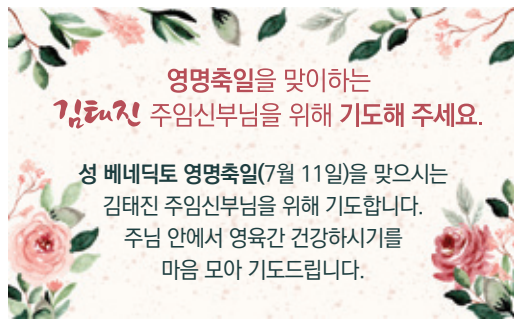
8 청소년부 열린 회의

- 주제: **새학기 주일학교 오픈과 미사** 관련 사항
- 날짜: 7월 10일(토) 오후 3시
- 장소: 친교실
- 대상: 청소년부 소속 봉사자, 교리교사, 학부모, 라파엘과 로고스 청년회

청소년사도회에서 새학기 주일학교 운영과 주일학교 미사 시간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오픈 미팅을 주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가책을 지침해 주세요.

- 당분간 성가책은 **개인이 지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미사 참석 의무에 대한 알링턴 교구의 지침

- ▶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일 미사 참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6월 26일부터 주일미사 참석에 대한 의무가 복원**되었습니다.
- ▶ 단, 이 의무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나 기타 중증 또는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당 정상화에 따른 행정 지침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미사 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4.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5.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6. 모든 모임은 사도회 담당 부회장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감사 미사

- 10월 3일(일) 오후 3시(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미사 집전)

매 미사 시작 전 25주년 기도문

-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일치를 지향하며 미사 전에 본당 승격 25주년 기도문을 바칩니다.
- 기도문은 주보대에 있습니다.

주일 미사 방송 안내

주일 미사 방송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하지만 방송으로 미사에 함께 하는 것은 더 이상 주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의 하나로만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연중 제14주간 : 마무리하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6월 27일(연중 제13주일)

주일헌금	\$ 5,801.00
교무금	\$ 9,330.00
교무금(신용카드)	\$ 6,07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380.00
2차 헌금	\$ 2,799.00
온라인 봉헌	\$ 3,400.00
합계	\$ 27,78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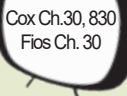
7월 7일(수) 오전 6:15-6:45
7월 10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주일 미사 강론
- CBCK 미디어 교리 - 천사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프

7월 8일(목) 오후 5:00-6:00
7월 9일(금) 저녁 8:00-9:00
7월 11일(일) 오전 6:00-7:00



1. CPBC 뉴스
2. 신부님 미사 강론
3.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 김대우 모세 신부 - 두번째 이야기 "네시에 온다면 제시부터 행복할까요?"



성당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미사에 참석할 때나 성당에 오실 때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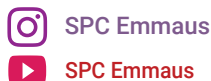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번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6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갈라라) 703-732-3836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SNS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월요일	06:00 AM
	· 10:00 AM		화요일	07:30 AM
	· 05:00 PM		수요일	11:00 AM
			목요일	06:00 AM
			금요일	07:30 PM
			토요일	06:00 AM/05:0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